

## 강간범의 성적 태도 및 심리에 관한 연구

허경미\*

### 〈국문초록〉

강간범의 범행동기에 대한 논의는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강간범의 심리는 상당부분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아미르나 울프강 및 페라쿠티 등의 주장과 같이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한 패턴으로써 강간의 이유를 설명한 경우나 오브리엔의 권력통제이론 등은 한국사회의 강간 혹은 성폭력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더욱 사회적 불평등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며, 변형된 폭력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간범의 범행동기를 심리적 열등감과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공격적인 성욕으로 이해한다면 강간범은 처벌의 대상이자 동시에 치료의 대상으로 그 지위가 변한다. 즉, 적당한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의 의학적인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강간은 늘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경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강간, 연쇄강간, 강간범, 강간피해자, 성충동

---

\* 계명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1. 들어가는 말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페미니스트 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의 연구가 남성범죄에만 중심을 두고 있고, 여성의 범죄성은 남성범죄자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거나 또는 남성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다(Simpson, 1989). 페미니스트 범죄학은 사회내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젠더(gender)의 불평등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 범죄학은 범죄학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을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및 열악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공격의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기존의 이른바 남성주의적인 강간의 신화(myth of rape)에 대한 이론적 반박의 논거를 확실히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의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기폭제가 된 연구는 1975년 아들러(Adler)의 『범죄에 있어서 여인들(Sisters in Crime)』, 사이먼(Simon)의 『여성과 범죄(Women and Crime)』이며, 이 저서들을 통하여 여성을 범죄인 혹은 범죄피해자의 객관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Schmallegger, 2004: 274-275).

이 논문은 강간죄에 대한 다양한 범죄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강간범의 성적 태도와 심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연구 방법은 기존 선행연구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해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개념구분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에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강간죄, 준강간, 의제강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제강  
제추행, 강간 등에 의한 치상이 포함된다(허경미, 2006: 121-127).

형법 제297조상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  
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가중의 이유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가 현저히 침해되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이란 “폭행 또  
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성적 자기  
의사결정의 자유)에 반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형법상 “부녀”의 개념에 결혼한 아내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  
여 법원은 그동안 부정적이었으나 2009년 1월 16일 아내 역시 강간죄  
의 객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부산지법 형사5부는 외국인 아  
내(24)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법원  
이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강간죄  
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형법상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  
를 제외한다는 근거가 없고 강간죄의 보호 대상을 ‘여성의 정조’가 아  
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만큼 아내에게도 같  
은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였으나 법률혼의 경우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009년 1월 17일자 사회면).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이 판결 후 자살함으로써 사건이 일심에서 종결되어 향후 유사판례 및 대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어야만 아내의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의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2009년 1월 22일자 사회면).

외국의 경우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강간에 대하여 폭력이나 위협이 수반되어 강제적으로 강요된 성행위라는 것으로 흔히 정의하며(Kenney & More, 1994: 33), 범죄행위로 처벌한다. 아내 강간에 대하여는 프랑스의 경우 1984년에, 영국은 1991년에, 그리고 독일은 1997년부터 처벌함으로써 아내의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을 보호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2) 강간의 유형구분

강간의 유형은 강간의 동기, 강간범의 수, 강간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강간범죄자 수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1인에 의한 강간(single rape)과 2인이 같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pair rape), 그리고 집단강간(multiple rape)을 들 수 있다. 강간의 동기에 따른 분류는 먼저 그로쓰(Groth)의 분류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로쓰는 강간을 공격성의 성적인 표현으로 보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Groth & Field, 1983).

먼저 무력형 강간(power rape)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공격을 가하는 경우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공격을 통

해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노형 강간(anger rape)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방법으로 성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로 잔인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권력형 강간이나 분노형 강간의 가해자는 피해여성과 상당한 심리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가학증적 강간(sadistic rape)은 가학주의적 경향, 즉 새디즘적 병질을 가진 자에 의한 성적인 공격행위로 공격적인 행동 및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펠슨과 크론(Felson & Krohn)은 강간의 유형을 사회-성적 모델과 처벌모델로 나누고 있다(Felson & Krohn, 1990). 사회-성적 모델(socio-sexual model)은 강간의 목적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며 위협이나 협박은 단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성적”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성행위가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욕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유형의 강간범죄자들은 범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또한 처벌모델(punishment model)에서의 강간은 피해자를 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행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강간의 유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 즉 낯선 관계에 의한 강간이 있다(stranger rape).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acquaintance rape). 데이트 강간(date rape)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친밀성(사회적 상호작용)에는 합의하나 무력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는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강간을 말한다. 부부강간(marital rape)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말하며, 어린이 성적 학대(child sexual abuse)는 아동에 대하여 어른이 폭력이나 권위 등의 수단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다. 근친강간(incest)은 어린이 피해자가 아버지 혹은 의붓아버지의 강제에 의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강간의 유형은 강간의 동기, 가해자의 수, 강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강간과 연쇄강간(serial rape)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살인과 연쇄살인을 구분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희생자의 수, 각 범죄행위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지역 간의 차이 등이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Petherick, 2006: 144). 따라서 범죄의 연쇄성에 대한 위의 요소를 고려할 때 연쇄강간이란 동일한 범죄자가 일정한 기간에 적어도 두 명 이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강간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3) 강간원인에 대한 범죄학적 관점

그렇다면 강간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를 설명하는 여러 입장이 있다.

아미르(Amir)는 미국사회에서 지역별로 범죄의 분포양상이 다른 사실에 착안하여 폭력의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개념을 가지고 강간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하위문화론자들은 특정지역의 강간발생률은 그 지역의 인구구성과 연령분포, 실업수준, 평균소득, 가족구성 및 강력사건 범죄율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Amir, 1971).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아미르는 실업률이 높고, 백인보다 흑인의 인구구성비가 높고, 대인 강력사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강간율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즉 동질성이 강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성추행 등의 공격행동이 문화적으로 묵인되는 지역에서 강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미르의 주장 및 1967년의 페라쿠티(Ferracuti)와 울프강

(Wolfgang)의 “폭력적 하위문화(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Criminology)”라는 연구논문에서 지적하는 폭력적 하위문화의 개념을 강간범죄에 적용시킬 수 있다. 하위문화이론은 범죄성향이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틀 내에서 학습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하위문화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강간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동료집단 등을 통해 학습, 유지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강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집단규범이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 등 모든 공격적 행위들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브리엔(O'Brien)은 성비(sex ratios)가 남자, 여자의 역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성비론적이론(Sex Ratio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결합시켜 성비와 강간의 비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권력통제이론(Power-Control Theory)으로 발전시켰다(O'Brien, 1991). 성비론적이론은 몇 가지 주요 사회현상에 대한 결정인자로서 성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비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여성에게 일부일처를 강요하지 않고 이혼율이 높으며 조혼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이 여성을 보다 사회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요인이 된다.

오브리엔은 성비가 높을 때, 여자는 어머니와 가정주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가정 밖의 교육, 직업은 덜 갖게 된다는 성비론적 주장과 일상활동이론을 결합시켜 성비와 강간의 비율은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비가 높을 경우 남성은 여성을 보다 통제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역할만을 강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므로 범죄를 당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비가 높을 경우 강간의 비율은 낮

아지게 되므로 성비와 강간의 비율은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오브리엔의 주장은 성비를 들어 강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포괄적인 설명력은 낮다.

이에 대하여 일상활동이론은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가해자와 적절한 목표, 그리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정 내 혹은 집 가까이에서 활동할 경우 범죄피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한편 바론과 스트라우스는 강간에 대하여 성불평등(gender inequality), 포르노그래피원인론, 문화적 간접효과(cultural spillover),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Baron & Straus, 1976).

먼저 성불평등 요인론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 강간이 특정 사회에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즉 남성다움의 표현을 지배성, 공격성과 같은 것에 두는 사회통제규범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 원인론은 포르노그래피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강간하도록 원인제공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포르노그래피가 성차별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당연시하며,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인 공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간접효과이론은 문화적인 요인들로 인해 강간이 정당하게 지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간은 폭력을 허용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해체이론은 범죄와 일탈을 지역공동체의 통합이 붕괴되고 사회적 규범이 약화된 조건들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갈등이론가들은 자본주의사회의 성차별구조 때문에 강간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차



별적 사회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 성의 층화(sexual stratification) 등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종속적 지위에서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Barnett, 1976).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여성이 마치 사유재산인양 취급되어, 강간이 발생해도 그것이 다른 남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사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며, 그러한 가치구조 속에서 강간이 저질러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개의 이론이나 관점으로는 강간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모든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펜실베이니아에서 진행된 강간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 유발(victim precipitation)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데 이는 강간 피해자인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강제적으로 강간당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Amir, 1971). 그러나 이 주장은 이후 인간의 성행위에 대한 모욕이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하는 발상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에 봉착했다. 더욱이 이러한 강간의 신화(myth of rape)는 강간범이 범행을 합리화하고 범행을 늘리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강간사건의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시스템에 대한 신념부족과 보복가능성의 두려움, 경찰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수치심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드러나고 있다(Palmiotto, 1994).

미국에서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여대생 중 거의 20%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성적인 강요를 받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Johnson & Sigler, 2000)<sup>1)</sup> 남성 역시 강간을 당하나 그 빈도는 여성 피해자에

1)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숙명여대 성평등상담소가 2006년 9월 5일~10월 7일간 학부 재학생 2천534명을 대상으로 '2006년 성의

비해 매우 미미한 정도라 할 수 있다. 남성 강간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군인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강간에 대한 모든 공식통계는 실제현상보다 10% 이상 적게 파악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강간의 대상은 낮은 사람에 대한 경우와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지만 연쇄적인 강간의 경우 대부분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강간범은 30대 이하가 80%정도인데, 특히 25세 이하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연령층이 낮다. 범피자는 저소득계층이며, 대개 흥기를 소지하는 경우는 25% 정도로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흥기는 대부분 같이거나 다른 날카로운 도구이다(Glick, 1995). 강간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폭력전과를 가진 경우가 1/3정도이며, 이 가운데 25% 정도는 강간전과를 가지고 있다.

### 3. 강간범의 성적 태도 및 심리

#### 1) FBI의 분류

많은 범죄학자 및 FBI에서 강간동기 등을 기준으로 강간범 유형을

---

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3.3%인 543명의 학생이 '성폭력을 겪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 284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아는 사람'이 79명(14.8%), '선배' 58명(10.9%), '교수' 19명(3.6%), '강사' 11명(2.1%)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시를 하고 화를 냈다'라는 응답이 167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참고 모르는 척했다' 142명(26.0%),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넘겼다' 100명(18.3%)이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14명(2.6%),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기관에 신고했다' 4명(0.7%)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도움 여부에 대해선 '도움이 됐다'가 291명(48.7%)이었으나 그 반대 답변은 106명(17.8%)이었다(연합뉴스, 2007년 8월 22일자 사회면).

분류하였다. 그로스 등은 133명의 강간범과 9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강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폭력, 분노, 그리고 성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사실상 강간은 폭력 또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표 7> 과 같이 강간범을 폭력지향형, 폭력강화형, 분노보복형, 분노가학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표 1> 범죄동기별 강간범 유형

강간범 유형	범죄동기
폭력지향형 (power assertive)	강간을 남성다움, 주인의식, 지배력의 표현이라 인식
폭력강화형 (power reassurance)	강간을 자신의 성적 수단 그리고 남성다움에 대한 의심을 푸는 하나의 수단이라 인식
분노보복형 (anger retaliation)	강간을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의 표현수단이라 인식
분노가학형 (anger sadistic)	피해여성의 고통을 보면서 행복, 스릴,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1) 폭력지향형 강간범(power assertive rapist)

강간을 남성다움, 주인의식, 지배력의 표현이라 인식하는 강간범으로 이들에게 강간은 단지 성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약탈을 위한 폭력적 행위이다(Holmes & Holmes, 1998). 강간시 나타나는 공격성은 피해자의 복종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범은 피해자의 인락과 행복에 관심이 없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의 핵심적인 사회적 성향 변수들이 <표 2> 에 나타나 있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의 거의 70%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며, 이들

중 1/3은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대략 75%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였다. 일반적으로 가정문제를 많이 갖고 있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이 이어진다. 이들은 외모에 매우 신경을 쓰며, 요란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 독신자들이 자주 가는 술집에 드나들며,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언제나 여자를 유혹하려고 궁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목소리가 크고 떠들썩하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끊임 없이 과시하려 한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은 건설노무자 혹은 경찰과 같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다. 일정한 종류의 유니폼은 이들의 남성적 이미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번쩍번쩍 거리는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데, 이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정 스포츠카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은 독신자들이 자주 가는 술집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공격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모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강간범은 특정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자들은 통상 강간범과 같은 연령대이다. 강간범은 피해자에게 갖가지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데 종종 사정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이 폭행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충분히 흥분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성교는 포식자로서의 약탈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행위이

〈표 2〉 폭력지향형 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대부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자주 독신자들의 술집에 간다.
양부모의 집에서 살았다.	남성적인 직업
대부분 아동학대 경험	가정적인 문제
고등학교 중퇴	재산범죄기록
결혼 및 이혼의 반복	건강하다.
외모에 민감	군대로부터 불명예 제대를 했다.

며, 피해자의 만족이나 고통 등에는 관심이 없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은 20일에서 25일 주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월경주기와 유사하다. 이는 폭력강화형(power reassurance) 연쇄강간범이 7일에서 15일 주기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분노보복형(anger retaliation) 연쇄강간범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범행을 행하는 것과 비교된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은 일반적으로 아내 혹은 연인과 같은 일정한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지만 강간의 충동을 느끼며, 강간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순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유형의 강간범은 때때로 신중하게 생각한 흥기를 소지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면이나 눈가리개 등을 별로 지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을 앞으로 다시 볼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강간 후 사과하지 않으며,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가져가지도 않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폭력지향형 강간범은 그의 충동을 거의 억제하지 못하므로 성격진단 시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정신병질자로 분류될 수 있다.

## (2) 폭력강화형 강간범(power reassurance rapist)

폭력강화형 강간범은 보상형 강간범(compensatory rapist)으로도 불리워지는 데 이들은 네 가지 유형에서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제일 작다.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을 갖고 있고, 극단적인 패배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있다(Knight & Prentky, 1990).

이러한 유형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고, 싱글이면서도 부모와 함께 기거한다. 또한 활동성이 적고, 조용하며 수동적인

데 따라서 친구가 거의 없고, 섹스파트너도 없다. 일부는 모친으로부터 성적 유혹을 당하거나 폭력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성인잡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며,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보잘것없는 유형의 직업에 종사하지만 주변사람들에게는 꾸준하고 신뢰성 있는 직원으로 비춰진다.

폭력강화형 강간범은 정신병질적인 성적 다양성을 보이는 데 복장도착, 난교적 성적 행위, 노출증, 관음증, 성욕도착이나 과도한 자위행위 등의 모습을 보인다. 관음증의 피해자는 주로 이웃이며, 기회를 포착하여 직접 강간을 시도하기도 한다(Kenney & More, 1994).

〈표 3〉 폭력강화형 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싱글	시시한 직업
부모와 함께 산다.	자주 성인책방에 간다.
섹스 파트너가 없다.	관음증
활동성이 적다.	노출증
조용하고, 수동적이다.	복장 도착자
사회적 고독	성욕 도착자

〈표 3〉은 폭력강화형 강간범의 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Holmes & Holmes, 2002: 146).

폭력강화형 강간범에 있어서 강간의 기본적 목적은 강간을 통하여 그 자신의 지위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는 평상시 자신을 사회의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성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하에 뒹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폭력만을 사용한다.

이들의 강간은 이들이 평상시 가지는 성적 환상(sexual fantasies)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역시 성적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으며,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해치지 않는다. 이 유형은 피해자들이 성적

강간행위를 즐긴다는 가정 하에 범행을 저지르므로 성행위 도중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행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종 범행을 위해 필요한 신체 일부만을 노출하기도 한다.

폭력강화형 강간범은 자신과 동일한 연령 집단과 동일한 인종집단 내에서 피해자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로 걸어나다니면서 주변의 이웃 또는 자신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고르며, 자정부터 오전 5:00시 사이의 밤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간 행위의 시간적 간격은 7일에서 15일 사이이다. 일반적으로 강간범은 비교적 작은 폭력으로 시작하지만, 범죄가 지속되면서 폭력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집에서 흥기가 될 만한 것을 찾는다. 또한 피해자의 집에서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집어 갈 수도 있다.

이들은 네 가지 연쇄강간범의 유형 중 유일하게 범행 후 피해자를 접촉해서 신체 건강에 대해 물어본다. 피해자도 성행위를 즐겼다고 생각하므로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 강간을 통해 이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 의문을 해소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가지지 않는다.

### (3) 분노보복형 강간범(anger retaliation rapist)

폭력강화형 강간범과 달리 분노보복형 강간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해치게 되고, 이들은 폭행을 통해 실재하던 상상에 의한 것이든 그가 평생동안 다른 여성의 손에 당했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절반 이상(56%)이 부모 한쪽 혹은 양쪽으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대략 80%는 부모가

이혼하였다(Holmes & Holmes, 2002: 148). 이들 중 20%는 입양된 경우이고, 35%는 위탁가정에서 자랐다. 80% 정도는 어머니 혼자 혹은 여성 혼자 아이를 돌보는 집에서 자랐다.

〈표 4〉 분노보복형 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부모의 이혼	양자
낮은 교육수준	부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기혼자	건강하다.
신체적 학대경험	자주 술집에 간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여성 증오	격렬한 스포츠에 호감
	활동지향적 직업

분노보복형 강간범은 그 자신을 체력적으로 강건하고, 남성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육체적 활동이 많은 스포츠를 즐기고 경찰이나 운동선수 등의 직업을 가질수도 있다. 결혼을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혼외정사를 즐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통제 불가능한 성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부인이나 모친 또는 기타 여성들과의 일련의 경험으로 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며, 이 증오감이 분노감을 촉발시키고, 분노에 대한 보복적 행위가 강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보복형 강간범은 주로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강간이 우발적으로 행해지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에게 강간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주로 분노의 표현이며, 강간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강하다.

강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언어적 공격부터 신체적 공격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히 음란한 말을 내뱉고 종종 피해자들의 옷을 찢기도 하며, 주먹과 발을 포함하여 닥치는 대로 흥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퍼붓는 데 이는 자신의 성적 흥분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항문섹스나 오럴섹스를 하거나 얼굴에 사정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로 자신과 같은 인종의 같은 연령대 혹은 약간 나이 많은 여성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닌다. 이들은 범행 후 더 이상 피해자를 접촉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4) 분노가학형(sadistic rapist)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가장 위험한 강간범으로 강간의 목적은 성적으로 공격적인 환상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공격과 폭력을 에로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5〉 분노가학형 강간범의 사회적 특징

편부모 가정	약간의 대학교육 경력
부모의 이혼	기혼자
양자	범죄전과 없음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30세에서 39세 사이
성적 일탈 가정에서 양육	강박적 성격장애
중산층의 가정	화이트칼라 직업

〈표 5〉는 분노가학형 강간범의 사회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데 이들 중 약 60%는 편부모 가정 하에서 자랐고, 대다수가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겪었으며, 많은 수가 성적 일탈 현상을 보이는 가정에서 자랐다(Holmes & Holmes, 2002: 151). 이들은 관음증, 난잡한 성교, 과도한 자위행위와 같은 유년기 성적 병리 증세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Kenney & More, 1994: 96). 전형적인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결혼을 했고 주변에서는 그를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으로 인정한다. 상당수는 범죄율이 낮은 중산층 거주지역에 살며,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평균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강간범은 강박적인 성격(compulsive personality)을 보이는데, 이 요소는 프로파일링 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이들의 외모 및 차량은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지적이며, 범죄경력이 거의 없다. 그는 매우 치밀하게 강간을 준비하며, 일정지역에서 범행을 행하였다라도 그가 가진 지역의 평판 등으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즉 전과가 없고, 학식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뚜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점 등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가게 하는 것이다.

분노가학형 강간범에게 있어서 강간은 폭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따라서 체포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한다(Holmes & Holmes, 1998: 120).

이들은 잘 손질된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피해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눈에 안 띄는 장소로 이동시킨다(Ressler & Shachtman, 1992). 이들은 집 주변보다 먼 장소까지 가서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데 평균적으로 3마일 정도를 돌아다니며, 이들 중 절반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범행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한다(Warren, Reboussin, & Hazelwood, 1998).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피해자를 통제하기 보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재갈, 테이프, 수갑 또는 기타 자잘한 기구들을 사용하며 피

해자의 눈을 가려 공포심을 주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극히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로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동안 그의 부인 또는 어머니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도록 한다.

또한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의식(ritualistic)을 중요시 여기는 데 강간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진행한다. 즉,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어를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성행위의 전회로서 오럴섹스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정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이들은 치밀하게 강간을 계획하므로 종종 자신의 차량에 “강간 도구함(rape kit)”을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Ressler & Shachtman, 1992). 예를 들어 테드 번디(Ted Bundy)는 수갑, 얼음 송곳, 스키 마스크, 속옷으로 만든 마스크, 밧줄,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타이어 교체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sup>2)</sup>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범행을 지속하면서 더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스토킹하는 방법과 살해한 시체를 처리하는 보다 좋은 방법을 익힌다. 이들에게 살인은 2차적일 뿐이다. 테드 번디는 “단지 피해자들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살인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분노가학형 강간범은 종종 가벼운 알콜 중독자이거나 기분전환용 약물사용자들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회가 없고, 잡힐 때까지 범죄를 지속한다. 따라서 분노가학형 강간범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테드 번디(Ted Bundy)는 1970년대에 미국 시애틀 및 솔크레이크시 등지에서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무려 15명의 여성을 강간 후 살해 혹은 살해하였다. 그는 법률학도였으며,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만큼 수재형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1989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 2) 나이트와 프렌키의 MTC:R3

강간 특히 연쇄강간은 그 대상이나 성인 및 아동을 불문하고 그의 사이코패시 여부에 대한 진단이 불가피하다. 사이코패시에 대한 진단은 오랫동안 DSM-IV를 사용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헤어(Hare)교수가 제작한 PCL(Psychopath Check List)이 활용되었다. 이후 헤어교수가 1985년에 PCL을 보완하여 PCL-R(Psychopath Check List-Revised)을 보급하였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된다.

PCL-R은 DSM-IV가 제시한 진단기준 및 여러 학자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을 진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는데, 인격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영역과 행태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인격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영역에는 피상성, 논리적 거짓말, 교활성, 동정심 부족, 죄책감 결여, 자기과시 등이 포함된다. 행태적인 특성에는 반사회적인 행동, 불안정하고 일탈적인 생활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적인 요소가 강간범의 특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특징은 나타날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적인 강간범과 그렇지 않은 강간범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Brown & Forth, 1997). 즉 사이코패스가 강간의 이유를 설명하는 완전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Palermo & Farkas, 2001: 87-88).

강간범은 성적 충동과 동기가 매우 다양하다. 오랫동안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를 해온 메세추세츠 치료감호소(Massachusetts Treatment Center)는 성범죄자를 성범죄자, 아동추행범, 강간범 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이트와 프렌키는 (Knight & Prentky)는 성범죄를 7가지의 척도로 9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MTC:R3로 명명하

였다(Knight & Prentkey, 1990).

7가지 척도는 명백한 공격성, 분노,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사회적 능력, 성적 지향성, 가학성, 보복성 등이다. 이러한 척도를 바탕으로 먼저 제1유형과 제2유형은 기회(opportunity)와 관련이 있다. 제1유형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지위에 있으며, 성인기부터 일탈이 시작된 경우이며, 제2유형은 사회적으로 무능하며, 청소년기부터 비행이 시작된 경우이다. 이 두 유형의 성범죄는 장기적이거나 계획적 혹은 성적 환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계획적이며, 본능적이고, 공격적이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제3유형은 분노(anger)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화를 내며,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화를 낸다. 이들은 매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강간시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해를 가한다.

제4와 제5유형은 성에 대한 가학적(sadistic) 그리고 환상(fantasies)을 가진 경우이다. 제4유형은 명백한 가학형(overt sadism)으로서 강간시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학적인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며, 제5유형은 아예 침묵한다(mute sadism). 제6유형과 제7유형은 성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데, 제6유형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제7유형은 사회적으로 무능하다. 이들은 성적 충동이 매우 강하며, 성적 학대 성향이 강하며, 성도착적 징후를 보인다. 제8유형과 제9유형은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가진 경우로 제8유형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제9유형은 사회적으로 무능한 경우이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는 수단으로 여성피해자에 대하여 모욕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 3) 강간범 심리의 공통적 특징

FBI와 헤어의 PCL-R 및 나이트와 프렌키의 MTC:R3 등을 바탕으로 할 때 강간은 범인의 사랑을 구하는 방식의 한계이며, 사랑을 구하는 인간관계적인 기술의 부족 혹은 상실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왜 강간범이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간범의 프로파일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강간범은 폭력을 매개로 성적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자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폭력적 요소가 가미된 범죄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간범들은 특히 힘(power), 분노(anger), 성욕(sexuality) 등의 특징을 보인다(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또한 자연스러운 이성과의 관계유지능력이 부족하고, 향정신성 물질이나 알콜섭취 남용, 폭력적 포르노물에 심취하는 특성을 가진다.

강간범의 프로파일링은 강간범이 가진 긴장(tension)과 충동(compulsion)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강간이 왜 선택되는 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Holmes & Holmes, 1998). 모든 강간범들이 그 동기나 범행수법 등에 있어 유사한 점을 가진 건 아니다. 그러나 강간범들은 대부분 아동기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부족하였고, 이것이 정상적인 성격발달을 저해했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아동기 시절 강간범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대부분 거부(rejecting), 과도한 통제 또는 지배, 체벌(punitive), 과보호(overprotective)와 유혹(seductive)등으로 설명된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주로 비관여적(uninvolved), 무관심(alloof), 일정한 거리유지, 부재나 수동적(passive)이지만 가끔씩 체벌과 잔인함을 가진 대상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강간범이 가지는 성적 좌절감, 범죄행위, 성적 성향 (sexual personality)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어린 시절 냉정한 부모의 모습, 부모의 일관성 없는 제재나 처벌, 성적 질투나 자극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간범에게는 아동기에 주로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 유혹을 당한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형제나 부모와 장기적으로 잠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어른들의 성생활에 일찍부터 노출되어 성적 자극을 받은 경우도 발견된다. 상당한 사례에서 강간범들은 사춘기까지 어머니와 한 침대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지배적이고 가학주의적인 어머니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강간범이 성인기에 달했을 때 여성들을 향해 드러나는 적대적 행위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당한 고통에 대한 복수 행위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강간범의 범행동기에 대한 논의는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강간범의 심리는 상당부분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아미르나 울프강 및 페라쿠티 등의 주장과 같이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한 패턴으로써 강간의 이유를 설명할 경우나 오브리엔의 권력통제이론 등은 한국사회의 강간 혹은 성폭력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더욱 사회적 불평등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며, 변형된 폭력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간범의 범행동기를 심리적 열등감과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공격적인 성욕으로 이해한다면 강간범은 처벌의 대상이자 동시에 치료의 대상으로 그 지위가 변한다. 즉 적당한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의 의학적

인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강간은 늘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경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간범의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의 정서 및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쇄강간의 경우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형태로 범죄가 진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사회적 합의를 이루거나 제도로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치료감호법」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혹은 개정 등을 통하여 강간범에 대한 교정처우적 차원에서 치료 및 사회 내 처우 등을 강화하고 있다. 즉, 강간범에 대한 치료감호형의 확대 및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와 함께 치료감호소 및 교도소 출소 후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일명 전자발찌를 채움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 및 처우를 일정기간 연장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정책은 강간범에 대한 기존의 교정처우 보다 강간범의 신체적, 심리적인 특징 등을 반영한 진일보한 처우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간범이 가지는 내재된 심리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와 교정이 반복되어야만 그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고접수: 2009. 3. 10. 게재확정: 2009. 5. 10)

---

3) 미국의 8개주 및 영국, 독일, 체코, 폴란드 등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성기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것을 형벌에 부과·처분하는 형태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엔이나 유럽의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운다하여도 강간 동기가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 역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전영실 외(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조병인(1999),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법문사.
- 허경미(2006),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 동아일보, 2009년 1월 17일자 사회면 성폭력 남편에 경종 여성계 반색.
- 경향신문, 2009년 1월 22일자 사회면, 누가 임모씨를 자살로 내몰았나.
- 연합뉴스, 2007년 8월 22일자 사회면: 여대생 23% 성폭력 피해 경험.
- Adler, Freda (1975), *Sisters in Crime*, New York: McGraw-Hill.
- Amir, Menachem (1971), *Pattern in For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nett, Harold C. (1976), "The Political Economy of Rape and Prostitu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No.8, pp.59-68.
- Baron, Richard L. & Christopher M. Straus (1976), "Four Theories of Rape: A Macro sociological Analysis", *Social Problems*, 34(5). pp.467-489.
- Blackburn, R.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hichester: Wiley.
- Brown and Forth (1997), "Psychopathy and Sexual Assault: Static Risk Factors, Emotional Precursors, and Rapist Subtyp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5), pp.848-57.
- Clark, Linwood L. & Kenneth D. Lewis (1977), *Rape: The Price of Coercive Sexuality*, Toronto: The Woman's Press.
- Ewoldt, C. A., C. M., Monson & J. Langhinrichsen-Rohling(2000),

- “Attributions about Rape in a Continuum of Dissolving Marital Rel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11). No.11, pp.1175-1182.
- Felson, R. B. & M. Krohn (1990), “Motives for Rap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3), pp.222-242.
- Felson, Richard B. and Marvin Krohn (1990), “Motives for Rap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pp.222-242.
- Glick, L. (1995), *Criminology*. Boston: Allyn & Bacon,
- Groth, Burgess, & Holmstrom (1977),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11), pp.1239-1243.
- Helsham, S. (2001), “The Profane and the Insane: an Inquiry into the Psychopathology of Serial Murder,” *Alternative Law Journal*, 26 (6), pp.269-273.
- Holmes R. M. & S. T. Holmes (1998), *Serial Murder(2nd ed.)*. CA: Sage Publications.
- Johnosn & Sigler (2000). “Forced Sexual Intercourse among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pp.95-108.
- Kenney & More(199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MN: West.
- Knight & Prentky (1987), “The Developmental Antecedents and Adult Adaptations of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4, pp.403-426.
- \_\_\_\_\_(1990), “Classifying Sexual Offenders: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of Taxonomic Models”, *In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s*, W.L. Marshall, D.R. Laws, and H.E. Barbaree, eds. New York:

Plenum Press.

- O'Brien, Michael R. (1991), "Sex Ratios and Rape Rates: A Power-Control Theory", *Criminology*, 29(1), pp.99-114.
- Palermo and Farkas (2001), *The Dilemma of The Sexual Offende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Palmiotto, M. J. (1994). *Criminal Investigation*. Chicago: Nelson-Hall.
- Petherick, Wayne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 Elsevier.
- Ressler, Robert K. & Tom Shachtman (1992), *Whoever Fights Monsters*. New York: St. Martin's.
- Rozée, Patricia D. (2006), "Forbidden or Forgiven? Rap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7(4), pp.499-514.
- Schmallegger, Frank. J. (2004), *Criminology Today: An Integrative Introduction*, NJ: Prentice Hall.
- Simon, Rita J. (1975), *Women and Crime*, Lexington, MA: Lexington Book.
- Simpson, Sally (1989), "Feminist Theory, Crime and Justice", *Criminology*, 27(4), pp.605-632.
-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rren, Reboussin, & Hazelwood (1988),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olfgang, Marvin E. & Franco Ferracuti (1967),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in Criminolog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Abstract>

## The Study on the Sexual Attitudes and Psychology of Rapists

Koung-Mi Huh

There are lively diverse discussion on motive of rape. But there are same distinction. Exactly, a distorted sexual impulsion and forcible attitude. By the way, violent subculture theory of Amir and Ferracuti and Wolfgang is very effective method to explain rape in korean society. The power-control theory of O'Brien is also same. Especially, recently many prostitution which are adult men to female juvenile look inequality of sexual power in korean society. It is a deformed sexual violence.

If we understand mental disorder and uncontrolled attractive sexual impulsion about rape, the status of rapists is change to medical treatment client. Exactly, proper medicine and counselling are provide to the rapists. But we have to social consensus about guideline of medicine treatment and penalty to rapists.